

# 동아프리카공동체의 전자여권 발급 기한 연기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 kimyj@kiep.go.kr)

## 주요내용

- ▶ 2017년 4월에 개최된 제35차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각료이사회에서 'EAC 단일 전자여권'의 발급 개시 기한을 기존 2017년 1월 31일에서 2018년 1월 31일로 1년 연기하였음.
- ▶ EAC의 단일 전자여권 발급은 상품, 개인,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회원국들의 균형 잡힌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시장'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 단일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EAC 공동시장 설립'이라는 목표의 가시적 성과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음.

## 1. 이슈 현황

▶ 2017년 4월에 개최된 제35차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각료이사회에서 'EAC 단일 전자여권'의 발급 개시 기한을 기존 2017년 1월 31일에서 2018년 1월 31일로 1년 연기하였음.<sup>1)</sup>

□ 이는 탄자니아의 EAC 전자여권 도입 준비 지연에 따른 조치로 남수단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은 EAC 전자여권을 발급할 준비가 되었음.

- 부룬디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전자여권을 도입하였으며 케냐, 우간다 및 르완다는 2017년 하반기부터 EAC 전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임. 2016년 8월에 가입한 남수단의 도입 시기는 미정임.

□ 단일 전자여권에 대한 논의는 2016년 2월에 개최된 제17차 EAC 정상회담에서 처음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본국 여권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해야 함.

□ EAC 전자여권은 여권소지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RFID(Radio Frequency ID) 칩 및 생체 인식 식별 기

1) 동아프리카공동체는 총 6개국(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로 이루어진 정부 간 조직임.

능을 탑재하여 여권 복제와 같은 보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표 1.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추진 단계 및 주요 내용

추진 단계	주요 내용
관세동맹 (2005년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관세철폐를 통한 역내 자유무역 촉진</li> <li>·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li> <li>· 원산지 규정 등 관련 법·규제 통합</li> </ul>
↓	
공동시장 (2010년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개인,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법·규제 조화</li> <li>· 국경 관리 시스템 통합</li> <li>· 교육, 고용, 환경과 같은 사회 정책 조율</li> </ul>
↓	
통화동맹 (2013년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까지 단일 통화체제 도입</li> <li>· 공동 환율 정책 등 재정 정책 및 규제 통합</li> <li>· 중앙은행 설립</li> </ul>
↓	
연방정부	· 연방정부 및 단일 대통령을 골조로 한 단일 국가 설립

자료: EAC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

## 2. 원인과 분석

▶ EAC의 단일 전자여권 발급은 상품, 개인,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회원국들의 균형 잡힌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시장’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2001년에 설립된 EAC는 8개의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중 가장 늦게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공동시장을 발족하였으며 단일 전자여권 발급도 최초임.
- 케냐, 우간다 및 르완다는 이미 2014년부터 단일 관광 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 EAC 전자여권이 발급되면 그 범위가 관광뿐만 아니라 외교 및 상용까지 확대될 예정
  - 단일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국민은 본국과 동아프리카의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어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 내에서 이동할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음.

## 3. 전망과 시사점

▶ 단일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EAC 공동시장 설립’이라는 목표의 가시적 성과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음.

- EAC가 원칙적으로는 노동의 이동 자유화를 표방하지만 기근, 내전, 경제적 여건의 차이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높고 국내 공공정책 및 안전, 보건 등의 사유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전자여권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ECA 회원국 간 역내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남수단은 2013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으며 기근까지 겹쳐 전체 인구의 약 65%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부룬디는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2015년에 헌법을 위반하여 3선에 도전하면서 내전 위기에 처해 있음.
- 탄자니아는 보안문제, 비자 수수료 문제, 데이터 교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자여권 발급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케냐의 경제적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표 2. EAC 회원국의 경제 성장 지표

	명목 GDP(억USD)			1인당 명목 GDP(USD)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총인구 (백만명)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2016
남수단	—	157	90	—	1,563	730	—	5.5	-6.3	12.7
부룬디	11	20	30	140	214	277	0.9	3.8	-3.9	11.5
르완다	25	56	80	286	553	697	6.9	7.3	6.9	11.8
우간다	90	201	275	321	609	705	6.3	5.7	5.1	40.3
탄자니아	169	314	456	446	708	879	8.2	6.4	7.0	55.1
케냐	187	399	633	530	991	1,376	5.9	8.4	5.6	47.2

자료: World Bank Databank

- 아프리카연합(AU)도 2020년까지 도입 완료를 목표로 작년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어 이중 발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선이 예상됨. <sup>2)</sup> EMERiCs

#### 참고문헌

- EAC, The East African, AllAfrica 등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현재까지는 정부수반 및 고위급 외교관들에게만 발급됨.